



**P2-P4/ 교수칼럼**

박득훈 초빙연구위원의 '몽상을 넘어 이상으로'가 실려있습니다.



**P5-P8 / 느헤미안 칼럼**

이수연님의 '스승의 날 즈음하여'와 신승철님의 '목회학연구과정 적응기'가 실려있습니다.



**P9-P12 / 재정보고와 기도제목**

지난달 느헤미야의 살림살이 보고와 기도해주실 내용 등이 있습니다.

# 뉴스레터 **느헤미야**

2016년 6월호 (통권 7호)



**화롯불 모임**

5/1 <섹스앤더처치> 독서토론으로 모였습니다.

6/12 한국교회문제에 대한 토론모임이 있었습니다..

**신학 특강**

6/7- 7/12 매주 화요일 7:30-9:30 <현실과 성서-헬조선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특강이 서울과 대전에서 진행됩니다.

**느헤미야 1학기 종강 일정**

5/24-26 기독교입문과정 종강

5/31 대전 기독교입문과정 종강

6/6 신학전문 과정 종강

6/7 기독교학 심화과정 종강

6/16 연구과정 종강

**좋은땅 목회자 강좌 (2차)**

4/26 성내동 좋은땅교회에서 목회자 강좌가 있었습니다. 김동춘 연구위원이 두차례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사회 개최**

5/10 서울영동교회에서 2016년 3차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연구원 운영보고와 새로

운 공간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인교회 특강**

5/15 느헤미야 후원교회인 예인교회에서 김동춘 연구위원을 초청하여 주일예배 설교와 오후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위원 퇴수회**

6/19-21 충북 음성 하.나.의.교회 하우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교수칼럼

## 몽상을 넘어 이상으로

>> 박득훈 초빙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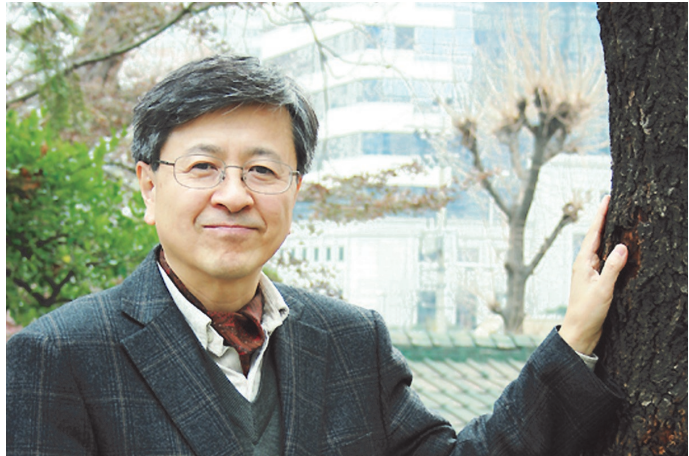
최근 제 수업시간 중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강의 내용이 좋긴 한데, 혹시 우리들끼리만 통하는 이야기는 아닌지요?” 그 분의 얼굴에 우려가 역력해 보였습니다. 아마 그 질문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혹시 우리가 현실과는 너무 괴리된 꿈같은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지요, 아니면 한국교회와 사회가 전혀 알아주지 않는 신앙과 사고를 갖고 살다보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 등등 말입니다. 저는 그날 돌아오면서부터 새삼 몽상과 이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그 차이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몽상(夢想)

몽상이란 냉혹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환상적인 미래를 꿈꾸고 말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 그리고 그 꿈이 곧 실현될 거라 믿으며 들뜬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에도 그런 몽상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열두제자들이 한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조만간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믿은 게 분명합니다. 그 분이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고치실 뿐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고, 수 천 명의 무리를 떡 몇 덩이와 물고기 몇 마리로 배불리 먹이시는 걸 보고 있노라면, 정말 어깨가 쑥 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해가는 도중 사마리아에서 묵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엄청난 제의를 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눅 9:54). 와! 사기충천입니다. 그런가하면 바로 그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예수님께 슬쩍 다가가 은밀한 부탁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 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막 10:37). 이 두 제자들이야말로 몽상에 들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다른 열 제자들이라고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는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까지(눅 9:46; 22:24) “누가 더 크냐,”며 서로 다투던 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몽상가의 비극은 냉혹한 현실 앞에 부딪히면 맥없이 무너진다는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열한 저항 끝에 지배 세력에 체포당해 죽음에 바짝 다가가시자, 제자들의 몽상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 이상(理想)


그러면 이상은 몽상과 어떻게 다를까요? 위대한 혁명가 체 게바라의 명언이 다시 생각납니다.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저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이상가(理想家)는 다 이런 자세로 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한 리얼리스트였습니다. 첫 전도여행 중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나자 그는 다시 돌아다니며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행 14:22) 바울은 하나님나라가 결코 쉽게 도래할 거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많은 고난을 겪을 걸 내다 보며 마음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냉혹한 현실 앞에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자신이 뭘 몰라 너무 순진했노라며 참회와 변신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이상에 가장 가까운 현실적 대안을 선택하긴 했지만, 이상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불가능한 꿈을 더욱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그의 가슴은 그 꿈으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절이 그래서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행 28:0-31)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두 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친구 덕에 2년 전 터키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유적을 살펴보면서 에베소는 정말 풍요하고 화려한 당시 최고의 문화도시였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길을 거닐면서 철학자들의 토론장, 귀족들의 거처, 목욕탕, 유흥가, 도서관, 널찍한 장터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바울 당시에도 있었던 웅장한 원형극장입니다. 에베소를 빠져나오며 뒤 돌아보니 원형극장이 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바울은 이렇게 화려하고 찬란한 도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한 그 초라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구나!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뜨거운 가슴으로 선포했구나! 그 바울의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지니 벽간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굳게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래, 한국에 돌아가면 나도 거대한 맘몬의 세계, 자본주의 제국에 맞서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증거 하리라!” 저는 그 감동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제 가슴 속에만 꼭꼭 담아두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동안 함

께 했던 제 아내와 친구부부에게도 말하지 않았습  
니다.

요즘 저는 김근수 선생의 마태복음 해설서인 『행  
동하는 예수』라는 책을 새맘교회 교우들과 함께  
읽으면서 독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잊을  
수 없는 한 대목을 만났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  
한 사람이 되려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  
오.” 이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몽상가에  
서 벗어나 이상가의 길을 깨끗하게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느헤미야 식구들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싶습니다. 

## 〈현실과 성서〉 특강 / 1차 스케치

헬조선, 과연 교회의 책임은 없는가?  
\_ 박성철 교수



"... 한국교회가 사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들

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의 사  
회적 활동이 투명하게 이뤄져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  
니다.

... 구조의 문제는 의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식  
은 교육을 통해 전환되는데 교육은 연대로 이뤄집니다. ...  
특정 계층을 위한 것뿐 아니라 목적을 위한 연대가 필요합  
니다. 교회가 인식론의 한계와 오류로 촘촘히 연결되어, 사  
회로부터 시대를 잃고 있습니다. 성장주의 같은 욕망이 왜  
곡된 욕구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선한 영향  
을 미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  
각할 수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느헤미안

## 스승의 날 즈음하여

>> 이수연 목회학연구과정 3년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뒤에는 항상 사람들의 두 가지 질문이 뒤따른다. “왜 신학을 하는지” 그리고 “왜 느헤미야인지”

2013년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목회학연구과정 1기로 입학한 이후 2년 동안 이에 대한 답을 수도 없이 해왔다. 그러면서도 내심 궁금했다. 학부 때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다른 신대원에 다녀본 것도 아니어서 다른 곳의 공부는 어떤지 항상 궁금했다. 내가 왜 느헤미야를 선택했는지 말할 수는 있어도 다른 학교의 공부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선택했는지는 말해주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느헤미야에서 4학기를 마치고 올해 타 학교 신대원 Th.M 과정으로 진학했다. (느헤미야 목회학연구과정은 6학기과정이지만, 남은 2학기는 부분수강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3월 한 달을 보냈고, 조금 시간이 지나 4월 중순쯤 된 어느 날, 수업시간에 갑자기 눈물이 났다. 지난 2년 동안 느헤미야에서 신학의 밑그림을 너무 잘 그려주신 것이 문득 감사해서 교수님 한 분 한 분 얼굴이 떠올러지면서 울컥한 것이다. 고대철학부터 현대신학까지, 교회사, 윤리, 구약, 신약 참 고르게 먹이며 키워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가 가능했다.

느헤미야는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수강 신청할 수 없고, 학교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수강해야 한다. 1학년 때는 3학점 5과목, 2학점 4과목을 듣고 거기에 원전강독과 채플, 스터디가 두 개쯤 더 있다. 과제가 없는 수업이란 있을 수 없고, 더욱이 1학기에는 모든 과목에 대한 텀페이퍼를 제출해야 한다. 느헤미야의 페이퍼는 표절이 없다. 교수님이 각주에 표기된 페이지까지 확인하시고 수정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첫 1년을 보내고 나면 신학을 전혀 접하지 않았던 그 누구라도 신학의 기본기가 만 들어져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

또 수업시간에는 그 어떤 질문도 허용되므로 학생들은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묻고 사고하고 교수님의 솔직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수업시간 이외에도 교수실은 항상 열려있다. 매일 함께 밥을 먹고 생각을 나누고 고민을 나눈다. 느헤미야의 사제관계는 참으로 평등하고 친밀하다. 이런 분위기는 신학적 사고의 틀을 넓히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

이렇게 2년을 생활하고 진학한 Th.M 과정은 느헤미야에서 익힌 공부법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즐겁게 잘 따라가고 있다. 매주 과제를 하고 발제문을 작성하는 것부터 텀페이퍼를 준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느헤미야에서의 공부 덕을 톡톡히 보고 있

다. ‘정말 뻥뻥하게 공부하고 왔구나’, ‘신학적 기반이 탄탄하구나’, ‘제대로 공부하고 왔구나’ 등등의 말들을 듣고 있고, ‘느헤미야’라는 곳에 대해 궁금해 하고 많이들 묻는다.

제 자랑 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이러한 공부 하나로 인한 것이기 보다 느헤미야의 교수님들 덕분에 이기에 스승의 날 즈음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이제 신학의 출발선에 선 것 뿐이고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느헤미야에서의 시작은 앞으로 내가 걸어갈 신학의 길을 잘 인도해줄 것이다.

2년 동안 지도해주신 모든 교수님들과 집보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질문들로 서로를 성장시켰던 학우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현실과 성서〉 특강 / 2차 스케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 (계 18:4)  
- 헬조선, 탈주와 순응사이 \_ 박영호 교수



"...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본래 기독교 복음의 선포 자리였는데, 사회가 '희망이 없다'라는 것 이상으로 교회가 더 절망적이 된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더 절망적으로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이 아닌 가짜희망을 열심히 팔아왔기 때문입니다."

"... 계시록은 비일상적인 '묵시'라는 장르와 일상적인 '편지'가 결합하여 있는데, 제국의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평균적인 독자였습니다. 약한 자를 압제하는 구조의 정치권력, 경제권력, 타락한 문화 체제에서 '나오라'라는 18장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약한 경제체제와 내가 갖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둘 중 어느 삶을 살라고 지나치게 몰아붙이고 강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한 체제에 살아간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정말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준비와 급진적 제자들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안

## 목회학연구과정 1학년 적응기

>> 신승철 목회학연구과정 1년



느헤미야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느헤미야 목회학연구과정을 시작하게 된 30대 중반의 애매하게 풋풋한 유부남 신입생. 신승철이라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8년간 사역을 하다가, 감사하게도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서 배움의 시간을 주셔서 이곳 느헤미야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저를 생각해 주시는 주위 분들의 우려의 시선도 있었고, 끊임없이 왜 느헤미야로 가느냐는 질문도 받았고, 느헤미야가 뭔지 모르는 지인들을 위해 이런저런 설명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질문과 마주하는 것이 이곳에서 연구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겪어 오셨던 느헤미야 적응기의 첫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아직 내공이 부족한 제게 이러한 시간들이 솔직히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남들의 시선과 판단에 마음이 뒤숭숭하기도 하고, 선택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희미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사는 인생”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저를 붙잡아준 말입니다.

김근주 교수님께서 뉴스엔조이와의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인데, 기사를 읽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나의 미래에 집중되어 괜찮아 보이는 안전한 길을 의심 없이 따라 가다 보면 결국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배우는 것이 느헤미야의 첫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이 의심하고, 스스로에게 왜냐고 묻고, 무엇인지 따지다 보면 결국 그곳에서 나의 바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보다 먼저 느헤미야에서 공부를 시작한 선배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에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망이 부족한 저를 보며, 현장에서 치열하게 삶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야성을 잃어버린 저를 보며 부끄러워집니다. 교수님들의 삶을 보면 더더욱 부끄러워집니다. 누가 학생이고 누가 선생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목이 터져라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대로 몸이 부서져라 살아내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워집니다. (스승의 날이 얼마 전이어서 아부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말고도 목격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적응기의 두 번째 과정은 부끄러움에 적

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덜 부끄러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두 번째 배움입니다.

좋은 스승과 선배를 만나면 인생 피곤합니다. 대강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질수록,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게 됩니다. 하,,, 인생, 피곤해지게 생겼습니다.

어느덧 한 학기가 마무리 되어갑니다. 매주 정신 없이 읽고, 듣고, 쓰다 보니 어느새 제법 익숙해져 갑니다. 내가 지금 무얼 듣고 있는지 조금씩 들리고, 여기가 어디쯤인지 조금씩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쁨을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어린 시절부터 캠퍼스 간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만 하다 보니 배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었는데, 이곳에서 좋은 선생님과 동료들을 통해 배우는 것에 적응하고, '배우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끝없는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법을 터득하는 시간이 제겐 너무 소중한합니다. 🍷

## 〈현실과 성서〉 특강 / 3차 스케치

여성들이여 잠잠하지 말라 - 구약의 여성들의 외침  
- 박유미 교수



'교회 내 여성들의 입을 막고 침묵을 강요하는 근거가 된 딤펀 2:12의 '오직 조용하라'라는 말이 에베소 교회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는 특수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창조질서로 혹은 만고불변의 진리로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 여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인지를 구약성경의 여성들을 살펴봄으로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성경 속에 기록된 여성들 특히 우리가 믿음의 여성이라고 부르는 여성들은 결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침묵하거나 잘못된 상황에 순응하며 살지 않았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외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외침에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 침묵을 강요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 외치고 자신의 권리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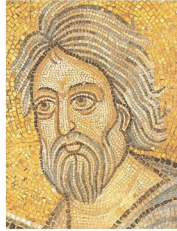
'오히려 여성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시대는 매우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다. 성폭행 당한 다말이 정의가 이루어지길 호소하며 외칠 때 침묵을 강요당했다. 이때가 다윗이 밋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때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다. ... 사사기 19-21장에서는 성폭행당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오직 여성을 수단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의 행동과 목소리만 있다. 이렇게 여성들이 목소리를 잃은 시대, 여성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무시당하고 침묵을 강요받는 시대는 성경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에게 잠잠하라고 침묵하라고 외치는 곳일수록 가장 어둡고 무질서하며 권위적이고 비신앙적인 곳이다.'

'... 여성들이여 잠잠하지 말라 잠잠하지 않은 여성들이 성경에 믿음의 인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성들도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외치며 교회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사역자로 귀한 자녀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2016년도 2학기

## 신학연구과정 신입생 2차모집



본 과정은 성서적 복음주의 신학,  
교회를 살리는 대안적이고 보편적인 신학,  
삶의 전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신학을 바탕으로  
한국기독교의 신학과 교회, 신앙의 틀을 새롭게 형성해 나갈  
지도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목회학 연구과정(Pastoral Studies) / 3년과정**  
**기독교학 연구과정 (Christian studies) / 2년과정**

- 응시자격** 학사학위 취득자 혹은 취득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 (본 연구원 소정양식)  
2. 최종학교 졸업/성적증명서 각 1부  
3. 자기소개서 (본 연구원 소정양식)  
4. 추천서 2부 (목사 및 멘토 추천서)
- 모집기간** 2016년 7월 1일 ~ 7월 15일  
(우편접수시 마지막날 우편발송까지 유효)
- 전형방식**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전형  
(일정은 추후 통보)
- 학업방식** 주중 3일(화, 수, 목) 주간 수업  
(단, 1학년은 화, 목 야간수업 병행)
- 등록금** 학기당 300만원
- 입학생특전** 입학생 전원 매 학기 반액(150만원) 장학금 지급

## 서울/대전 기독교학 입문과정 모집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성경연구와 실천적 삶에  
대한 욕구를 느끼신 분들을 모집합니다.

구약이야기II(역사와지혜) / 김근주 (구약)  
바울과 하나님 나라 / 권연경 (신약)  
하나님의 구원계획 / 김형원 (조직신학)  
교회역사 이야기 / 배덕만 (교회사)

- 모집기간** 2016년 8월 1일(월) ~ 8월 12일(금)
- 모집인원** 서울/대전 각 30명 이내
- 지원자격** 기독교인으로서 신학을 공부하고픈 분  
(목회자 지원 불가)
- 지원서류** 본 연구원 소정 지원서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후 메일로 접수
-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
- 과정소개** 본 연구원 느헤미야 홈페이지 참조
-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원 (소정의 정기후원신청 필수)
- 문의** 070-8260-0208



# 후원재정동역자와 재정보고 2016년 3월~5월

## 개인후원[정기/일시불]

강경란, 강도영, 강민혁, 강범일, 강선희, 강성태, 강수연, 강신국, 강신만, 강신하, 강인성, 강인자, 강일성, 강진규, 강현길, 강형미, 강화춘, 고광덕, 고미혜, 고선숙, 고용주, 고윤일, 고인환, 고재광, 공경표, 공성희, 공영찬, 광명화, 광신재, 광은이, 구동완, 구자옥, 권경옥, 권두현, 권병재, 권민정, 권성호, 권세윤, 권현아, 권현진, 가용서, 기호용, 김강산, 김정란, 김경모, 무명, 김규동, 김규진, 김근주, 김기범, 김기창, 김기현, 김기현, 김난희, 김남호, 김대근, 김대연, 김대원, 김덕, 김도선, 김동식, 김동훈, 김래산, 김미정, 김민석, 김민수, 김민정, 김민철, 김봉례, 김사원, 김상열, 김상옥, 김석현, 김석주, 김석태, 김선, 김선호, 김성대, 김성열, 김성학, 김세울, 김소희, 김수정, 김수희, 김신한, 김아름, 김아주, 김양현, 김연희, 김영구, 김영기, 김영문, 김영삼, 김영수, 김영승, 김영진, 김요한, 김용환, 김용순, 김우빈, 김유라, 김유성, 김은경, 김은별, 김은성, 김은애, 김은진, 김인성, 김인수, 김재진, 김정길, 김정은, 김정현, 김종옥, 김종필, 김주석, 김준길, 김준수, 김준혁, 김지은, 김지인, 김지현, 김지환, 김진, 김진미, 김진하, 김진협, 김진희, 김철휘, 김태원, 김태울, 김태환, 김택용, 김판재, 김하양, 김하영, 김한규, 김현정, 김형규, 김홍근, 김훈성, 김희정, 나정수, 나종삼, 남미영, 남백희, 남상일, 남성현, 남오성, 남일성, 남철, 노민규, 노항림, 노혜미, 노활석, 동방호현, 문기순, 문명관, 문봉국, 문성현, 문인배, 문인정, 문형욱, 문혜진, 문효빈, 민은주, 민지영, 박국이, 박금옥, 박금자, 박기용, 박두진, 박미경, 박미연, 박미향, 박민균, 박민서, 박병만, 박보윤, 박상백, 박성민, 박성숙, 박성준, 박세훈, 박소영, 박순창, 박애영, 박연주, 박영실, 박영혜, 박은정, 박재익, 박정수, 박정숙, 박종만, 박종선, 박중순, 박지연, 박지호, 박진일, 박진철, 박진호, 박한배, 박현, 박현삼, 박현학, 박형준, 박혜란, 박혜원, 박혜정, 박훈용, 방성희, 배명성, 배민철, 배성호, 배소연, 배용하, 배운기, 배태욱, 배한나, 백민정, 백승훈, 백승환, 변성진, 변은혜, 변지연, 서미영, 서연자, 석은성, 성경식, 성시윤, 손주환, 손주희, 손태훈, 송경근, 송다현, 송덕무, 송아진, 송창달, 송현미, 송효진, 신민영, 신선영, 신소용, 신승리, 신승철, 신주현, 신지호, 신현요, 신혜성, 심재용, 안경미, 안병열, 안세주, 안연희, 안영숙, 안윤희, 안재영, 양지영, 양희수, 엄진용, 엄태진, 여선영, 여신애, 오금애, 오세민, 오수경, 오숙현, 오인성, 오정희, 오주희, 오지현, 오혜경, 옥금희, 온상원, 왕정수, 우재형, 우종학, 원근배리, 유가을, 유경원, 유계상, 유병중, 유병욱, 유병진, 유병휘, 유철, 유수경, 유수진, 유슬기, 유영백, 유옥, 유정, 유주환(정수원), 유지은, 유지희, 유찬양, 유충현, 유태완, 유호영, 유희창, 유광영, 윤기원, 윤미지, 윤민구, 윤성운, 윤성윤, 윤수일, 윤준택, 윤진아, 윤찬민, 윤희정, 이강산, 이강, 이경은, 이경희, 이관영, 이귀영, 이규범, 이규복, 이근우, 이기호, 이길승, 이덕복, 이동주, 이동환, 이로운, 이병희, 이문식, 이미순, 이미영, 이방옥, 이병선, 이병욱, 이보람, 이사람, 이상진, 이상관, 이상호, 이선재, 이성용, 이세순, 이소연, 이수미, 이수범, 이수연, 이수정, 이순조, 이승민, 이신석, 이양천, 이연우, 이영주, 이완수, 이원근, 이원혁, 이윤정, 이은재, 이일수, 이장은, 이재은, 이정민, 이정희, 이종규, 이주, 이주연, 이준승, 이종림, 이지인, 이지영, 이진숙, 이진현, 이창민, 이창선, 이태호, 이흥관, 이한일, 이한주, 이향숙, 이현창, 이형석, 이혜원, 이호태, 이효구, 이희석, 임민선, 임석환, 임소숙, 임옥희, 임재하, 임종화, 임진화, 임철호, 임혜진, 장진세, 장정숙, 장상순, 장새미, 장유도, 장은선, 장의신, 장인숙, 장재규, 장재원, 장현일, 장혜영, 장효진, 전갑수, 전계명, 전남식, 전미이, 전성현, 전세훈, 전재윤, 전중환, 정국진, 정라함, 정명숙, 정미현, 정석구, 정선희, 정여임, 정영희, 정용인, 정원순, 정은주(정복순), 정이랑, 정재기, 정재훈, 정지영, 정지은, 정지훈, 정진희, 정찬형, 정재명, 정철규, 정택민, 정하나, 정한옥, 정혁규, 정혜경, 정혜은, 정희진, 정훈재, 정희원, 조기행, 조두용, 조상우, 조선미, 조성모, 조성영, 조성숙, 조성효, 조순경, 조순례, 조영민, 조영숙, 조원규, 조은아, 조혜정, 조희준, 지교용, 지성학, 진현자, 차미나, 차정원, 채미숙, 채미혜, 채인규, 채인혜, 채혜진, 천재성, 최경아, 최경진, 최금화, 최동국, 최미곤, 최사론, 최성호, 최세진, 최소영, 최수진, 최영상, 최영선, 최영희, 최요나, 최용주, 최원규, 최윤호, 최은영, 최은주, 최일호, 최자연, 최재훈, 최진영, 최태원, 최혁순, 최현복, 최왕덕, 하규하, 하상호, 하태근, 한나영, 한명석, 한병호, 한미연, 한상은, 한석문, 한솔, 한송희, 한승환, 한우진, 한은혜, 한은희, 한인희(유태호), 한지영, 한지일, 한혜원, 허성호, 허진석, 허환구, 현지윤, 호옥, 홍소라, 홍인경, 홍준호, 홍창용, 황가영, 황남조, 황선관, 황성주, 황정환, 황준영, 황혜정

## 연구위원 후원

강재희, 고선숙, 권연경, 김은형, 김인철, 김창식, 새순교회, 안재영, 이은희, 전갑수, 전계명, 조상우, 조석민, 최용주

## 교회 및 단체후원

100주년기념교회, ENM선교회서예A, 개포동교회, 광교산울교회, 그루터기교회, 나들목교회, 사림의교회, 산아래교회, 산울교회, 삼일교회, 새삼교회, 서울영동교회, 신바람휴게어, 어울림교회, 열린가정교회, 예인교회, 일산은혜교회, 주사랑교회, 진명해피케어, 찾은이광명교회, 하나꿈한빛누리, 한그루교회

## 장학후원

이은미, 무명, 무명, 무명, 무명, 무명, 무명

## 특정목적후원

기윤실(장소사용), 유지희(청년캠프)

## 운영성과

계정과목	3월~5월
사업수익	84,540,923
후원금	70,623,200
일반후원금	66,143,200
특정후원금	4,480,000
사업수입	13,886,423
수강료수입	11,428,000
사업수입	2,458,423
기타수입	31,300
사업비용	91,260,251
사업운영비	29,411,450
사업인건비	22,209,000
사업진행비	6,016,680
사업홍보비	1,185,770
관리운영비	61,848,801
인건비	37,043,960
사무관리비	24,804,841
당기 순자산의 증(감)	-6,719,328

## 재무상태

계정과목	
자산	
유동자산	54,784,934
당좌자산	54,784,934
비유동자산	83,237,069
투자자산	4,352,349
유형자산	38,884,720
기타비유동자산	40,000,000
자산총계	138,022,003
부채	
유동부채	100,000
부채총계	100,000
순자산	
기본금(영구제한)	1,445,000
잉여금(제한없음)	136,477,003
순자산총계	137,922,003
부채와순자산총계	138,022,003



## 기독교학 입문과정 동영상 강의



스트리밍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

vimeo.com/  
nicsmedia/  
vod\_pages  
로 들어가기

**2**

6개월간 볼 수 있는  
한학기 강좌를  
선택 (각 강좌 50\$)

**3**

모두대여를 클릭후  
신용카드 결제  
메일만으로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 동영상수강은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정규과목이수와는 별개입니다.



김근주, 김형원, 배덕만 교수의 강의 교재는 대장간 출판사 <느헤미야 기독교 입문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시중서점이나 느헤미야에서도 구입가능

## 느헤미야 이슈북 시리즈



1. 세월호와 역사의 고통에 신학이 답하다
2.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복음이나 율법이나)
3. 목사란 무엇인가?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무엇이 문제인가?)
4. 한국교회 설교, 무엇이 문제인가
5. 권력과 맘몬에 물든 한국교회



## 에고에이미 시즌 1

- 1회 그리스도인의 소유관
- 2회 한국교회와 설교
- 3회 정치하는 그리스도인 1부
- 4회 정치하는 그리스도인 2부
- 5회 한국교회는 왜 보수적인가?
- 6회 목회자와 평신도
- 7회 청년, 멘토, 힐링 1부
- 8회 청년, 멘토, 힐링 2부
- 9회 새벽기도
- 10회 한국교회 목회자의 세습 1부
- 11회 한국교회 목회자의 세습 2부
- 12회 방언 필수적인가? 보수적인가?
- 13회 QT, 말씀묵상
- 14회 한국교회와 이단: 이단에 대한 신학적 고찰
- 15회 한국교회와 이단: 현재 한국교회의 이단 문제
- 16회 교회란 무엇인가? 1부
- 17회 교회란 무엇인가? 2부
- 18회 헌금 1부
- 19회 헌금 2부
- 20회 자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1부
- 21회 자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2부
- 22회 그리스도인의 음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1부
- 23회 그리스도인의 음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2부
- 24회 박정희 전대통령 추모예배에 대하여
- 25회 신학교의 운영구조와 그 폐해들
- 26회 왜 우리는 목회자 양성교육을 시작하는가?
- 27회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신학연구과정의 정체성과 신학교육의방향
- 28회 정교분리의 복잡한 역사
- 29회 구약, 그 정치적인 말씀
- 30회 교회와 정치 : 공적 사회에서 기독교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 31회 교회의 정치적 역할
- 32회 세월호 참사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1)
- 33회 돈에서 해방된 교회
- 34회 세월호 참사와 문창극 사태로 비추어 본 한국교회와 신학 - 1부 성서학적 통찰 (1)
- 35회 세월호 참사와 문창극 사태로 비추어 본 한국교회와 신학 - 2부 교회사적 분석 및 윤리적 판단 (2)
- 36회 안식 그 거룩한 부르심
- 37회 복음서의 안식일 (2)
- 38회 사회적 안식일 신학을 향하여
- 39회 안식일의 정신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 40회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 41회 독실한 기독교인 총리 무엇이 문제일까?

## 에고에이미 시즌 2

- 1회 안식일인가! 주일인가!
- 2회 독실한 기독교인 총리, 무엇이 문제일까?
- 3회 아직도 십자가 대속론인가?
- 4회 성경 이해와 현지 답사

느헤미야 일정 및 알림

1. 7월 화롯불모임이 7월 13일에 있습니다.
2. 2016하나님나라공동체수련회<청년함께>가 7월 6일부터 9일 까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3. 2016학년도 2학기 신입생모집 일정을 참조하셔서 지원과 권유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학/목회학 연구과정 7월 1일부터 2차 모집

기독교학입문과정 : 8월 1일~12일

4. 7,8월 기간은 모든 과정이 방학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새 학기 준비와 행사들로 바쁘게 돌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와 동역

1. 새 학기 신입생 모집을 통해 준비된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2. 7월에 있는 하나님나라공동체 수련회를 위하여 (참가자, 날씨와 재정, 진행을 위하여)
3. 교육공간 확충을 위하여 (10월에 재계약)
4. 연구위원들의 과다한 업무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5. 올해 사업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편집부 알림

느헤미야 뉴스레터는 계간으로 발간됩니다. 이 뉴스레터는 후원자와 후원교회에 발송됩니다. 좋은 글을 보내주시면 실어드립니다. 특히 후원자와 재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실 때마다 동역의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후원자님들은 사무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느헤미야

발행인 김형원

편집인 고상환

편집부 광명화 배한나

발행일 2016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길 5-15 구미빌딩 2층

H. [www.nics.or.kr](http://www.nics.or.kr) P. 070-8260-0208

F. 02-323-0208 E. [nics@nics.or.kr](mailto:nics@nics.or.kr)

팟캐스트. 예고에이미

후원방법

## &lt;정기후원&gt;

[www.nics.or.kr/funding](http://www.nics.or.kr/funding)에서

자동이체후원 신청

## &lt;무통장 후원&gt;

국민 822401-04-042816

국민 093401-04-186547

(재)한빛누리(기부금영수증 발급)

## 연구위원 후원

신한 100-027-945530

## 학생 장학금 후원

국민 012501-04-251307

## 해외에서 후원

Swift CODE : CZNBKRSE

국민 822401-04-042816